

군내부조리 실태분석과 예방대책*

: 장병자살사고 발생원인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Absurdity in Military Camps and Preventive Measures
: Focusing on Military Suicides

박기주 (Park, Gi Joo)**

ABSTRACT

The high suicide rate of the military personnel causes serious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it gives pain and sorrow to their families and brings losses of the military power and of valuable members of the society.

Therefore, it is critical for the morale of soldiers and for the society itself to decrease the suicide rate.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some preventative measures by trying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suicides. First of all, the theories about the suicide were discussed and then it was found that the suicide rate in the military camps is higher than that in general. The result of the study says,

- ① The suicide rate seems to go down since 1990.
- ② "Hanging oneself" is used most frequently for suicides and followed by "taking poison".
- ③ Most of the suicides was committed while duty off.
- ④ Those whose ranks are "Private" committed suicide more often than those in any other ranks.
- ⑤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ose from low income families have a high rate of suicide.
- ⑥ In occupation before the military, the unemployed and students

Key Words : Juveniles(청소년), Suicide(자살), Soldier(군인), Death(죽음), Combat Strength(전투력)

1. 서론

최근 (2006.8) 육군 이병이 총기를 발사, 선임병 2명을 숨지게 하고 무장 탈영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육군 28사단 GP내에서 일병이 고참병들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과 병영 내에서 사병들 사이에 전기고문을 모방한 신종가혹행위가 적발되는 등 아직까지도 군내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조리 와 인권침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그동안 청소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군 장병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군조직은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내에서는 자유와 개성 그리고 창의력의 발휘면에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으며 욕구불만 해소를 위한 갈등해소 방법도 미흡한 등 일반 사회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폐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

* 이 논문은 2006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층이 군인으로 입대하게 되어 힘든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든 현실을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군대 조직은 국토방위라는 특수한 사명을 갖고 조직된 특수 집단으로서 일반조직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구성원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사는 병역의무를 가진 강제로 구성된 집단으로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 조직이다.¹⁾ 또한 가정환경 및 학벌 등 여러 가지 배경을 달리하는 청소년층이 함께 생활하는 이질적인 개개인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²⁾

따라서 위와 같은 군의 특수한 분위기로 인하여 이로 인한 변화된 생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선임병의 폭언·욕설·폭행 등 가혹행위에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 더구나 입대전 사회에서 가정문제 등 원인을 안고 입대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청소년들은 쉽게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되는 성향이 있다.(Cohen-Sandler et al., 1982)

일례로 2000년도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층이라 할 수 있는 10~14세에서 3위(3.7%), 15~19세에서 2위(13.5%), 20~24세에서 1위(17.0%)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들의 자살문제는 군에도 간접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군에 입대하고 있고, 군입대 직전의 생활이 청소년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군입대 후에도 계속 연장된다고 할 수 있어 청소년 자살의 요인은 곧바로 병사들을 자살에 유인하는 원인이 되는 등 상호 깊은 상관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Kanner et al., 1981)

더구나 최근 자살은 대기업 회장, 정치인, 연예인등 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자살 까지 다양한 방법과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인명경시의 풍조는 곧바로 군내에도 유입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인의 자살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가 속해있는 가정과 군에 슬픔을 가져다 주는 행위이며 국가적으로는 군의 비전투 손실과 사기저하 및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까지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군에서의 사망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군내 사망자 중 자살자의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군인의 자살사고예방 활동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 3년간 군복무중 자살한 군인들의 자살원인을 살펴본 결과, 과거와 같은 가정환경, 여자관계, 염세비관, 부채 등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으나 점차 개인관계의 자살자는 줄어드는 대신 구타, 복무염증, 처벌우려 등 부대내 문제에 의한 자살자가 오히려

- 1) 군에 있어서 자살사고 발생은 고귀한 인명손실과 함께 전투력의 기본요소가 되는 병력에 대한 비전투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군기와 질서를 문란시켜 부대의 단결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며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살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자 부모들에 의해 군 의문사의 직·간접 원인이 되는 등 병사들의 자살사고가 군에 미치는 해악은 지대하다 할 수 있으므로 군의 전투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병사들의 자살사고 예방과 근절은 현재 군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2) 동료란 사회화의 중요한 요인이며, 정서형성에 출처이며 특수한 행동기준을 갖도록한다. 또한 동료집단의 영향은 가정의 영향을 훨씬 능가한다 (홍성열,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3. 211면).

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³⁾

또한 과거와는 달리 군에서 자살사고가 발생하면 유족들이 군을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써 자살사고 처리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대에서는 자살 및 의문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방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단순히 이미 발생한 사고의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 자살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자살·군의문사를 방지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군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소년층 장병의 자살사고 원인분석을 토대로 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 전력을 보호하고 장차 전역후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모색하였다.

II. 연구목적과 방법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을 최근 자살이 우리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군내에도 예외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군 내 사망사고중 청소년과 동일 연령층에 있는 병사들의 자살사고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 청소년층 군 장병의 자살사고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사회학적 자살 연구자인 E. Durkheim(1968)은 외적구속(external resistant)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수에 따라 공격행위의 표출방법이 달라서 살인 혹은 자살이라는 형태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 외적구속에는 상하 집단에서의 수직적구속(vertical resistant)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제약되는 수평적구속(horizontal resistant)이 있어 이들 측면의 상호관계에 의해 자살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군장병들은 위 두가지 환경과의 상호교류에 의해 발생하는 좌절과 자극으로 최근 군내에서 발생하였던 충기난사 사건과 같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 이로인한 과급효과를 고려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2. 연구대상과 방법

연구의 대상을 육·해·공군 중에서 청소년층 연령에 해당하는 병사들을 중심으로 발생실태 및 원인을 살펴보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군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자료들은 국회

3) 인간은 환경적요구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누적된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감정적 흥분이 커지면 개인은 와해되거나 조정력을 잃게 될 위험에 빠진다고 하여 군입대로 인한 부적응이 사고에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최정윤외 2인, 이상심리학, 학지사, 2000, 40면).

국정감사자료를 통하여 입수하였고 군 관련 연구논문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기초하였으나 선행연구와 문헌분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군내 인권환경실태와 장병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예방대책은 매우 좋아졌으나 그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의 방법은 최근 5년간의 군내사망사고와 자살사고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군 자살사고 실태

1. 군내 사망사고 유형

군인의 사망사고 실태 및 분석에서는 2001~2005년까지 최근 5년간 국직부대를 제외한 육·해·공 3군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보면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720명으로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50명(48.6%)이며 자살 등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69명(51.3%)에 달한다.

<표1> '01 ~ '05 5년간 군내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계 | 안전사고 | | | | | | | | 군기사고 | | | | |
|-------|-----|------|------|-----|-----|-----|-----|-----|-----|------|------|-----|-----|-----|
| | | 소계 | 차량 | 항공 | 폭발 | 추락 | 익사 | 화재 | 기타 | 소계 | 자살 | 총기 | 폭행 | 기타 |
| '01 | 164 | 95 | 37 | 5 | 2 | 11 | 19 | 1 | 20 | 69 | 66 | 0 | 5 | 5 |
| '02 | 158 | 72 | 34 | 5 | 2 | 12 | 9 | 0 | 10 | 86 | 79 | 2 | 2 | 3 |
| '03 | 150 | 73 | 29 | 12 | 1 | 10 | 13 | 0 | 8 | 77 | 69 | 0 | 1 | 7 |
| '04 | 134 | 64 | 27 | 6 | 3 | 4 | 13 | 1 | 11 | 69 | 66 | 0 | 1 | 2 |
| '05 | 114 | 46 | 19 | 4 | 1 | 4 | 11 | 0 | 7 | 68 | 59 | 8 | 1 | 0 |
| 총계 | 720 | 350 | 146 | 32 | 9 | 41 | 65 | 2 | 56 | 369 | 339 | 10 | 10 | 17 |
| 비율(%) | 100 | 48.6 | 20.3 | 4.4 | 1.2 | 5.7 | 9.0 | 0.6 | 7.8 | 51.3 | 47.1 | 1.4 | 1.4 | 2.4 |

자료 : 공군본부, 「'05년 범죄분석지」, 2006, P.20

이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망자 1450명에 비교하면 대폭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사고 내용에서 자살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47.1%)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군의 비전투력 손실은 물론 장병들의 사기저하와 나아가서는 유족들에 의해 군의문사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여 군내 자살사고에 대한 대책강구는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또한 사망사고를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나눈다면 군 전체에서 안전사고는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95명(22.6%), 72명(45.6%), 43명(48.7%), 64명(47.8%), 46명(40.4%)이며, 군기사고는 69명(42.1%), 86명(54.5%), 77명(51.3%), 69명(51.5%), 68명(60%)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2년 이후부터는 자살 등 군기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안전사고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점차 군내 사망사고에서 자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원인 중 내부적인 측면인 군문화에 대한 혐오감과 잔존부조리의 관행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특히 본 논고의 주제인 자살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2001년 66명(40.2%), 2002년 79명(50%), 2003년 69명(46%), 2004년 66명(49.3%), 2005년 59명(51.8%)로 2003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망사고의 50%에 가까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사망자 군별, 계급별 현황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군별, 계급별 현황은 군보안상 자료확보가 어려워 2001년~2002년 7월까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2> 사망자 군별, 계급별 현황 ('01 ~ '02 : 명)

| 구분 | 총괄 | | 육군 | | 해군 | | 공군 | |
|--------|-----|-----|-----|-----|-----|-----|-----|-----|
| 총계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 소계 | 11 | 8 | 6 | 2 | | | 5 | 6 |
| 장교 | | | | | | | | |
| 영관 | 1 | 2 | | | | | 1 | 2 |
| 위관 | 10 | 6 | 6 | 2 | | | 4 | 4 |
| 준사관 | | | | | | | | |
| 소계 | 30 | 16 | 14 | 9 | 11 | 2 | 5 | 5 |
| 원사 | 1 | | | | | | 1 | |
| 부사관 | | | | | | | | |
| 상사 | 3 | 3 | 2 | 3 | 1 | | | |
| 중사 | 14 | 6 | 8 | 3 | 4 | 2 | 2 | 1 |
| 하사 | 12 | 7 | 4 | 3 | 6 | | 2 | 4 |
| 병 | | | | | | | | |
| 소계 | 99 | 58 | 85 | 52 | 11 | 3 | 3 | 3 |
| 병장 | 14 | 8 | 13 | 5 | 1 | 2 | | 1 |
| 상병 | 20 | 13 | 17 | 12 | 3 | | | 1 |
| 일병 | 29 | 13 | 24 | 13 | 4 | | 1 | |
| 이병 | 36 | 24 | 31 | 22 | 3 | 1 | 2 | 1 |
| 상근예비역 | 9 | 7 | 17 | 7 | 2 | | | |
| 훈련/교육생 | | 1 | | | | | | |
| 군무원 | 5 | | 3 | | 1 | | 1 | 1 |

자료 : 국방부, 『2002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2, p.316

계급별 사망자 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전체 사망자 146명 중 사병 99명(60.4%), 부사관 30명(18.3%), 장교 11명(6.7%), 상근예비역 9명(5.5%), 군무원 5명(3.0%)이다. 2002년 7월까지의 전체 사망자 90명 중 사병 58명(64.4%), 부사관 16명(17.8%), 장교 8명(8.9%), 상근예비역 7명(7.8%), 군무원 0명(0%), 훈련/교육생 1명(1.1%)이다. 전체 사망자 중 사병의 비율이 60%가 넘으며, 2001년에 비해 2002년은 4%가 증가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병들이 징집에 의해 군 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사병의 사망비율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 군별 경우를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2001년 장교 6명(2.6%), 부사관 14명(11.2%), 사병 85명(68%), 상근예비역 17명(13.6%), 군무원 3명(2.4%)이다. 2002년은 장교 2명(2.9%), 부사관 9명(12.9%), 사병 52명(74.3%), 상근예비역(5.6%)이며 해군의 경우에는 2004년 장교는 0명(0.0%), 부사관 11명(44%), 사병 4명(44%), 상근예비역 2명(8%) 군무원 1명(4%)이다. 공군은 2002년 경우 장교는 0명(0.0%), 부사관 2명(40%), 사병 3명(60%)이다. 2001년 공군 전체 사망자 14명 중 장교는 5명(35.7%), 부사관 5명(35.7%), 사병 3명(21.4%), 군무원 1명(7.1%)이다. 2002년의 경우 장교 6명(40%), 부사관 5명(33.3%), 사병 3명(20%), 군무원 1명(6.7%)이다.

군별 사망사고의 계급별 분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군별 사망사고의 계급별 분포가 일정하다는 점이다. 해군의 경우 2002년 7월까지 사망사고가 2001년에 비해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백분율 비율의 급격한 변화가 있지만, 육군과 공군의 경우 계급별 분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군별 사망사고의 계급별 분포는 군의 특성을 반영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군의 경우 사병에 비해 부사관이나 장교의 사망자가 더 많다. 이것은 비행기 조종사가 장교라는 점, 항공사고 사망자 수와 공군 장교의 사망자 수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 볼 때, 공군 사망사고의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육군의 경우는 사병의 사망사고가 매우 높다. 사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68%에서 2002년에는 74.3%로 증가하였다.

3. 사병 사망자 군별 현황

다음으로 사병 사망사고 중 사병분포를 살펴보자. 이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군 조직의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고 예방대책의 핵심이 사병, 특히 이병과 일병에 맞추어지게 된 이유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표 3> 사병 사망자 군별 현황(%)

| 구분 | 총괄 | | 육군 | | 해군 | | 공군 | |
|----|-----------|-----------|-----------|-----------|-----------|-----------|-----------|----------|
| | '01 | '02 | '01 | '02 | '01 | '02 | '01 | '02 |
| 소계 | 60.4/100 | 64.4/100 | 68.8/85.9 | 74.3/89.7 | 44.0/11.1 | 60.0/5.2 | 21.4/3.0 | 20.0/5.2 |
| 병장 | 8.5/14.1 | 8.9/13.8 | 10.4/15.3 | 7.1/9.6 | 4.0/9.1 | 40.0/66.7 | 0.0/0.0 | 6.7/33.3 |
| 상병 | 12.2/20.2 | 14.4/22.4 | 13.6/20.0 | 17.1/23.1 | 12.0/27.3 | 0.0/0.0 | 0.0/0.0 | 6.7/33.3 |
| 일병 | 17.7/29.3 | 14.4/22.4 | 19.2/28.2 | 18.6/25.0 | 16.0/36.4 | 0.0/0.0 | 7.1/33.3 | 0.0/0.0 |
| 이병 | 22.0/36.4 | 26.7/41.4 | 24.8/36.5 | 31.4/42.3 | 12.0/27.3 | 20.0/33.3 | 14.3/66.7 | 6.7/33.3 |

사병 사망사고 중 각 계급별 분포를 보면 2001년 병장 14명(14.1%), 상병 20명(20.2%), 일병 13명(22.4%), 이병 24명(41.4%)이다. 일병의 경우 29.3%에서 22.4%로 줄었지만, 이병의 경우는 36.4%에서 41.4%로 높아졌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사병 사망사고의 절대적인 수치가 적기 때문에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수치

를 전체 사망사고에서 사병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1년의 경우 이병 사망자 36명은 부사관과 장교를 더한 41명에 버금가는 숫자이다. 2002년의 경우 이병 24명은 부사관과 장교를 더한 24명과 같은 숫자이다. 결국 전체 사망자에서 사병이 차지하는 수치가 함의하는 것은 앞으로 군 조직이 지금보다 얼마만큼 더 사병들이 군대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전역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 군별 자살자 현황과 발생원인

군조직은 자살의 원인을 크게 복무부적응, 처벌우려, 염세비관, 가정문제, 이성문제, 부채, 상급자횡포, 기타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에서 복무부적응과 상급자 횡포는 군 조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살자가 얼마만큼 되는지의 여부가 군대 생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자살자 중 복무부적응은 14명, 23명, 34명으로 절대적인 수치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상급자 구타의 경우도 6명, 8명, 9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지만, 복무부적응과 군내 잔존해있는 부조리라 할 수 있는 상급자 구타에 의한 자살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체 자살자가 매년 조금씩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2005년의 경우 복무부적응과 상급자 구타에 의한 자살자를 더한 수치 43명은 전체 자살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군대의 자살예방대책, 특히 군대 조직과 관련된 예방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존 연구나 군대 조직의 예방대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들이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군별 자살자 현황과 발생원인(명)

| 구분 | 계 | 복무 부적응 | 처벌 우려 | 염세 비관 | 가정 문제 | 이성 문제 | 부채 | 상급자 횡포 | 기타 | |
|-----|----|-----------|----------|----------|----------|----------|----|-----------|----|---|
| '03 | 계 | 69 | 14 | 2 | 6 | 23 | 13 | 2 | 6 | 3 |
| | 육군 | 53 | 11 | 1 | 3 | 19 | 11 | | 6 | 3 |
| | 해군 | 9 | 2 | 1 | 3 | 3 | 2 | 1 | | |
| | 공군 | 7 | 1 | | | 1 | 1 | | | |
| '04 | 계 | 67 | 23 | | 7 | 12 | 10 | | 8 | 7 |
| | 육군 | 54 | 23 | | 4 | 12 | 7 | | 8 | 7 |
| | 해군 | 8 | | | 1 | | 3 | | | |
| | 공군 | 5 | | | 2 | | | | | |
| '05 | 계 | 64 | 34 | 5 | 4 | 11 | | | 9 | 3 |
| | 육군 | 51 | 24 | 3 | 1 | 6 | 1 | | 7 | 2 |
| | 해군 | 9 | 6 | | | | | | 3 | |
| | 공군 | 4 | 2 | | | 1 | | | 1 | |

자료 : 국방부, 『2005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5, p.42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군대 내에서 자살한 병사들의 부모들이 군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인규명노력을 하고있어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5. 시행중인 군내 자살사고 방지 주요 프로그램

1) 신앙과 체육활동 적극 권장

1인 1종교 갖기 운동 및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고 있음

2) 면회객 전단문 활용

면회객(부모, 친지, 애인)들에게 우환이나 좋지 못한 사정 등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삼가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어 마음놓고 군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자살사고 예방 서신문 발송

지휘관 또는 헌병부대에서 전장 사병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에 대한 서신문을 발송하여 병사들에게 자살사고의 경각심을 고취시킴

4) 효과적인 면담제도

피부 접촉식 면담, 생일기억 면담, 편지수발 및 전화로서 면담·간담회 등 간부들이 병사들에 대하여 특성있는 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애로 및 고민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함

5) 보호사병 선발, 자살우려자 관리

부대별로 자살 등 사고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보호사병을 선발하여 특별 관리하며 자살징후표를 작성 관찰하는 등 자살사고에 대한 제반문제를 심층분석구 활용함으로써 자살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

IV. 군 자살사고 발생원인 및 분석

군인의 자살사고는 결과적으로 군기강을 저해하고 전투력을 손상시키는 바, 그 어떤 사고보다 군 및 사회에 미치는 피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자살사고는 결코 우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자살자의 가족, 친구, 동기생, 그리고 주변에서 그를 알고있는 사람들의 추측, 또는

유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원인 확인 차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자살자가 속해있는 군내부적인 측면으로서 군내부에서 군기감소 확립 및 교육 등을 구실로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군내부조리의 일환인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요인과 자살자의 개인적 환경요인으로서 자살자 및 가정환경의 요인측면,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자살사고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개인적인 요인

군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살/의문사 등 많은 사건사고들은 개인적 차원·사회적인 차원, 군대적 차원이 군인 개개인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한다. 이중에서 개인적 차원은 질병이나 상해, 성격장애, 불량한 행동습관 등에 따른 신체적 측면, 청소년기의 연령적 측면, 육구충족의 여부에 따르는 심리적 측면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가정이나 교육배경, 입대전의 직업과 같은 장병 성장 환경적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자살의 실행은 육구불만과 저지, 갈등 등에 대한 개인의 인내심의 강도와 육구불만에 대한 정상적인 적응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청소년층인 병사들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기 때문에 육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기 쉬우며 사회생활과의 단절은 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게하여 군생활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되면 비관하게 되고 정도가 심하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한다.

<표 5> 자살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장병 설문조사)

| 응답범주 | 비율(%) |
|--------|-------|
| 복무염증 | 41.4 |
| 사적제재 | 8.0 |
| 처벌우려 | 5.3 |
| 염세비관 | 13.3 |
| 가정환경비관 | 8.7 |
| 여자관계 | 15.3 |
| 신병비관 | 8.0 |
| 계 | 100 |

자료 : 육군본부, 「폭행과 사고예방」, 2004, p.65

즉 군에 입대한 장병들은 연령적으로 청년기에 접어든 시기로서 부모의 보호속에서 성장하여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재학중 입대하는 시기로서 사회경험이 없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 군생활중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게 되는 등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징을 갖고있는 장병들은 언제든지 자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2. 군 내부적인 요인

<표 5>에서 일반적으로 ‘장병들의 자살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41.1%의 병사들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심한 복무염증을 느낀 나머지 인내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을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 또한 염세비관이 13.3%, 여자관계가 15.3%, 결혼가정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서 자살할 수 있다는 응답이 8.7%로 나타났으며 고참병의 횡포와 내무부조리 등에 의한 폭행 등 사적제재를 당하여 감정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할 수 있다는 응답도 8%로 나타났다.

결국 군 조직의 특수성 속에서 사병들은 자율적 인간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되고, 이 같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자살의 잠재성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최근 발생하였던 훈련소 분노사건 등과 같은 군대내 각종 악성 부조리의 조장 또는 방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연령 등에 의한 폭행 등 사적제재행위, 병 상호간의 갈등은 자살·충기강력·군무이탈 등 제2의 사고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군 협조체제를 붕괴시키고 병영생활 분위기를 저해하는하나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층 장병들을 군생활에 적응시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자살유발요인과 자살과의 관계

| 원인 | 유발요인 |
|------|---|
| 부대관계 | 복무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년병들의 군 특수환경 부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정에서 신체 및 정신상태 나약 ·훈련, 작업 등에 대한 극기심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약체질자 등 인내심 부족 |
| | 처벌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무이탈 등 사고후 처벌이 두려워 ·업무수행중 잘못으로 처벌을 받을것이 두려워 |
| | 사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자 및 선임병 횡포, 가혹행위, 구타 등 군내 부조리요인 |

※ 자료 : 육군본부, 「'05 사고분석」, 2005, p.198

3. 사회적 요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군조직과 신세대 장병간의 의식성향의 불일치와 청소년의 범죄와의 상관 관계가 주요요인이 된다 할 수 있다..

즉, 군조직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유와 개성 그리고 창의력의 발휘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때에 따라서는 군대의 목적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하는 집합체이다. 반면에 청소년층 장병들의 사고방식은 현실중시, 개인주의적 생활과 가치관, 자유분방함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군조직의 특수성과 신세대 장병의 의식성향 사이에서 조화의 불일

치가 작용할 때 자살의 원인이 된다 할 수 있다.⁴⁾

<표 7> 연대별 청소년 범죄와 군범죄 및 사고와의 관계

| 연대 | 청소년범죄 | 군범죄 및 사고 |
|----------------|---|--------------------------------------|
| 1960 | ·절도 주종 | ·군용물손괴 및 경제범죄 |
| 1970 | ·강력 및 폭력화, 극악화 - 폭력, 강간, 강도, 살인, 방화 | ·총기난사, 인질난동 등 총기강력 및 일반강력사고 |
| 1980 | ·폭력화, 강력화 - 폭행, 살인, 강도, 상해 | ·극악화 양상 - 총기인질 - 내무반 총기난사 후 자살 |
| 1990 ~ 2000 | ·폭력화, 강력화 - 폭행, 살인, 강도, 상해 ·마약류 사범 및 자살행위 | ·폭행 및 자살사고 ·교통사고 ·경제범죄 |

※ 자료 : 육군본부, 「폭행과 사고예방」, 2005, p.24

또한 청소년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오늘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태도 점점 흉포화, 집단화, 대담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동일연령층에 있는 병사들의 범죄성향도 <표 7>에서와 같이 점차 감정적이고 극악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군대 내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 등 감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V. 군 자살사고 예방방안

1. 지휘관리측면

군조직을 통솔함에 있어 간부들의 리더십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군내부의 자살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은 간부들의 리더십 부족과 자살에 대한 이해 및 부적절한 조치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병영내 자살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사들의 의식구조를 간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병사들의 개개인에 내재되어있는 자살에 대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치하지 못함에 그 일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사들이 무엇을 고민하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등 지휘관리 방안을 적극 강조 하여야 하겠다.⁵⁾

- 4) 갈등론적 범죄이론(Thorsten Sellin)에서는 군대와 사회라는 문화적인 갈등이 내면화되고 양조적간의 규범갈등이 증대되면 이에적응 못한 구성원의 인격해체를 일으켜 결국 자살사고와 같은 범죄가 유발된다고 지적한다(이만중,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5, 91면).
- 5) 낙관성과 비관성과 대처의무의 한 관계에서 낙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의 통제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문제 해결 중심의 대처와 인지적 대처를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포기하는 등 수동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병사 roto인에 대한 지휘관리 방안강구가 필요하다(신현숙,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2권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2005, 171면 참조)

1) 지휘관의 관심제고

지휘관의 지휘방향 및 역량에 따라 조직 목표의 성패가 좌우되고, 안정된 조직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소속 장병들에 대한 신상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사들은 가정, 이성관계, 교우관계, 전우관계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초급간부 지휘 통솔력 향상

중간관리자인 초급간부들은 지식과 경험, 사명감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휘 통솔상의 결함을 보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통솔기법에 대한 연구와 사고예방적 차원에서의 신상파악과 상담기법, 관심병사 선도 및 적응기법, 합리적인 부대관리 기법 등을 위주로 하며 병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함양이 중요하다.

3) 부사관 자질향상

장교와 병사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사관은 병사들과 직접 접촉하고 그들의 고충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병사들과 대화하고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우수자원이 선발되어야 한다.

2. 내무생활측면

군대내 각종 부조리의 온상은 내무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병사들의 생활공간인 내무반이 편하지 못하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가 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입대 전에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규율이 엄격한 폐쇄된 조직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고 적응을 하지 못할 경우 자살 등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는 자살통계에 의하면 입대 1년 미만인 초년병들의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내무생활 부조리 척결, 병 상호간 인간관계의 개선, 복지환경 개선, 문제사병 조기파악과 선도활동, 정신 교육 및 군기강화립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구체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1) 내무생활 부조리 제거

지난해 발생하였던 GP내무반 총기난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내무생활은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무생활의 불안정은 바로 군 사고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

은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격모독·집단 따돌림·구타·가혹행위 등 각종 내무부조리를 제거하여야 한다.⁶⁾

이를 위해서는 소속장의 관심과 함께 내무반 편성인원을 축소하여(현재 10~20명 수준) 마찰요인을 줄이고,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오락시설 설치, PC방 마련 등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내무반의 환경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2) 신세대 특성을 고려한 병영문화제도 수립

최근 입대하는 ‘신세대’ 층은 자본주의 문화의 다양성을 맛본 세대이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문화적인 욕구도 더 크기 마련이기 때문에 ‘신세대’층에 맞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병 상호간의 관계는 군인복무규정상 상하관계 보다는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선임병의 억압과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제도보완측면

군내 사망사고 중 자살로 인한 사망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내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나 전문기구가 없어 자살예방을 위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병사들의 고민을 면담하고 심리적인 치료를 하여, 문제 있는 장병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병사들의 자살의 징후를 파악하고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부들에 대한 상담기법교육과 아울러 병사들의 부모님, 예비역 간부, 상담전문가들을 활용한 고충처리 상담인과 같은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1) 자살관련 전문 상담관 운영

정훈, 의무, 군중, 헌병병과의 장교를 중심으로 독립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여 각 급 지휘관에게 자살예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은 물론 진료와 상담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들 상담관들은 군내·외 각종 자료수집, 세미나 참석, 학술교류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합리적인 인사관리

병사들을 포함한 장병들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Job-Analysis)을 통하여 직무의 공

6)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할 때에는 그 수단이 규범 준수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한다. 따라서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내무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① 兵(병)상호간 준수해야할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하고, ②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방지할 외부통제제도를 확립해야하며 ③ 군대내 인권교육이 상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인권교육을 강화해야한다(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02, 2004면 참조).

정한 분담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가, 진급 등을 공평하게 실시하고 근무지도 개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각종 인사에 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3) 군내 자살자 안장 및 보상제도시행

외국의 자살자예우 및 보상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필리핀, 대만, 프랑스, 칠레,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군내 자살자안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국가보훈차원은 아니더라도 일반 재해보상차원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자살한 장병들에게는 현행의 군내사망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살사망자 보상금 혹은 위로금 지급금액을 증액하며, 사체나 유골을 군내 납골당을 설치하여 안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⁷⁾

4) 장병기본권 확립방안(법규)강구

2005년 논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비롯해서, GP총기사고, 해군제초제사건 등 군내부조리에 의한 병영내 가혹행위 근절과 장병기본권보장을 위해장병기본권 확립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⁸⁾

4. 인권개선측면

군내에서도 병영 주변에 퍼져있는 집합행위, 지시행위, 열 차려, 군기교육, 암기강요 행위등 ‘병 상호간 5대 금지사항’과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주관한 ‘2002년도 군대내 인권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군은 권위적이고 개인의 인격이 침해되며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시에는 유가족으로부터 의혹을 받게하는 사례가 많아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사나 가족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대내 인권문제는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과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최근 군사고 발생 경향을 살펴보면 군시설과 처우면에서 과거에 비해 월등히 개선되고 간부들의 지휘방법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쇄신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명경시풍조의 분위기가 만연하고 과거에 비해 정신적으로 나약한 청소년층이 군입대를 하여 군대라는 생소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 인내하지 못하는 등 원인으로 군내 자살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군내 자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군기질서 문란, 비전투손실, 군의

7) 2005. 9. 23 국방위 김성곤의원 「국방부, 합참국감보도자료」.

8) 2005. 6월 국회에서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칭) 군인기본법’작성이 국회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사기저하와 함께 대군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 군내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과급하게 되는 등 그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군대내에서 구타·가혹행위, 자살과 의문사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피해자나 사회운동단체들에 의해 계속 문제 제기가 됨으로 인하여 군내 조사보다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군의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과 같은 국가기구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조사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군에대한 인식과 사기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내 인권 문제, 그 중에서도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군내 자살사고에 대한 대책강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의 접근방식이 군대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입장에만 한정된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내 인권문제, 더 나아가 군의 민주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보다 실제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으로 군내 자살사고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다. 더구나 최근 사병 사망사고 중 계급별 분포를 보면 초임병인 이병과 일병의 비율이 평균 60~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군조직이 지금보다 더 초임 사병들이 군대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전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군인 자살의 원인으로는 크게 복무부적응, 처벌우려, 염세비관, 가정문제, 이성문제, 부채, 상급자 횡포, 기타로 분류하며, 이중 군문화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인한 복무부적응과 군내 잔존부조리라 할 수 있는 상급자 횡포를 군조직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자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어 대부분 청소년 계층인 병사들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와 갈등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군내의 자살예방대책, 특히 군대조직과 관련된 병사들의 자살 예방대책은 이러한 상황인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군대조직 차원에서도 보다 심도있게 원인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즉, 군대조직이 비록 특수한 국가조직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구성원인 병사들 역시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지금과 같이 소극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대책보다는 간부들 모두가 과연 군내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여 군내부에 잔존해 있는 부조리 척결에 힘쓰는 등 군대집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2001.
 ———, '05 국정감사요구자료(Ⅰ),(Ⅱ), 2005.
 김경래, “군 사고예방을 위한 병사의 의식구조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진혁, “군 내에서 자살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99.
 박평환, “청소년 비행에 따른 군범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손성환, “군 범죄의 발생요인과 예방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송현준, “군 장병의 자살사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여명호, “군 자살사고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2.
- 이경호, “한국군 사고요인 분석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 - 청소년 범죄가 육군사병 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만중,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5.
-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1996.
- 채봉식, “군 조직내 병사들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최정윤 외 2인, 이상심리학, 박영사, 2002.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여름, 2002.
- 홍성열,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3.
- Alvares, Alexander, and Ronet Bachman(2002). *Murder American Style*, San Francisco, CA : Wadsworth Publishers.
- Blackwell, Brenda S., and Michael S. Vaughn(2003). "Police Civil Liability for Inappropriate Response to Domestic Assault Victim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 129-146.
- Bonner, J. Rebekka S.(2002). "Reconceptualizing VAWA's 'Animus' for Rape in States' Emerging Post-VAWA Civil Rights Legislation," *Yale Law Journal* 111, 1417-1441.
- Cohen-Sandler, R., Berman, A. L., & King, R. A.(1982). Life stress and symptomatology : Determinants of suicid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178-186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and Lazarus, R. S.(1981). Comparisons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ashubeck. S., & Christensen, S.(1992). Difference in distress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356-362
- McLoyd,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 Printz., B. L., Shermis, M. D., & Webb, P. M.(1999). Stress-buffering factors related to adolescence coping : A path analysis, *Adolescence*, 34(136), 715-734
- Rae-Grant, N., Thomas., Offord, D., and Boyle, J.(1989). Risk, protective factors, and the prevalence of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262-268
- 저자약력 : 박기주는 조선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행정학 을 전공하였으며. 육군 37사단장 (육군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조선대학교 군사학부 교수로있다. 관심분야는 국방 및 군사정책, 전쟁사 등이다.